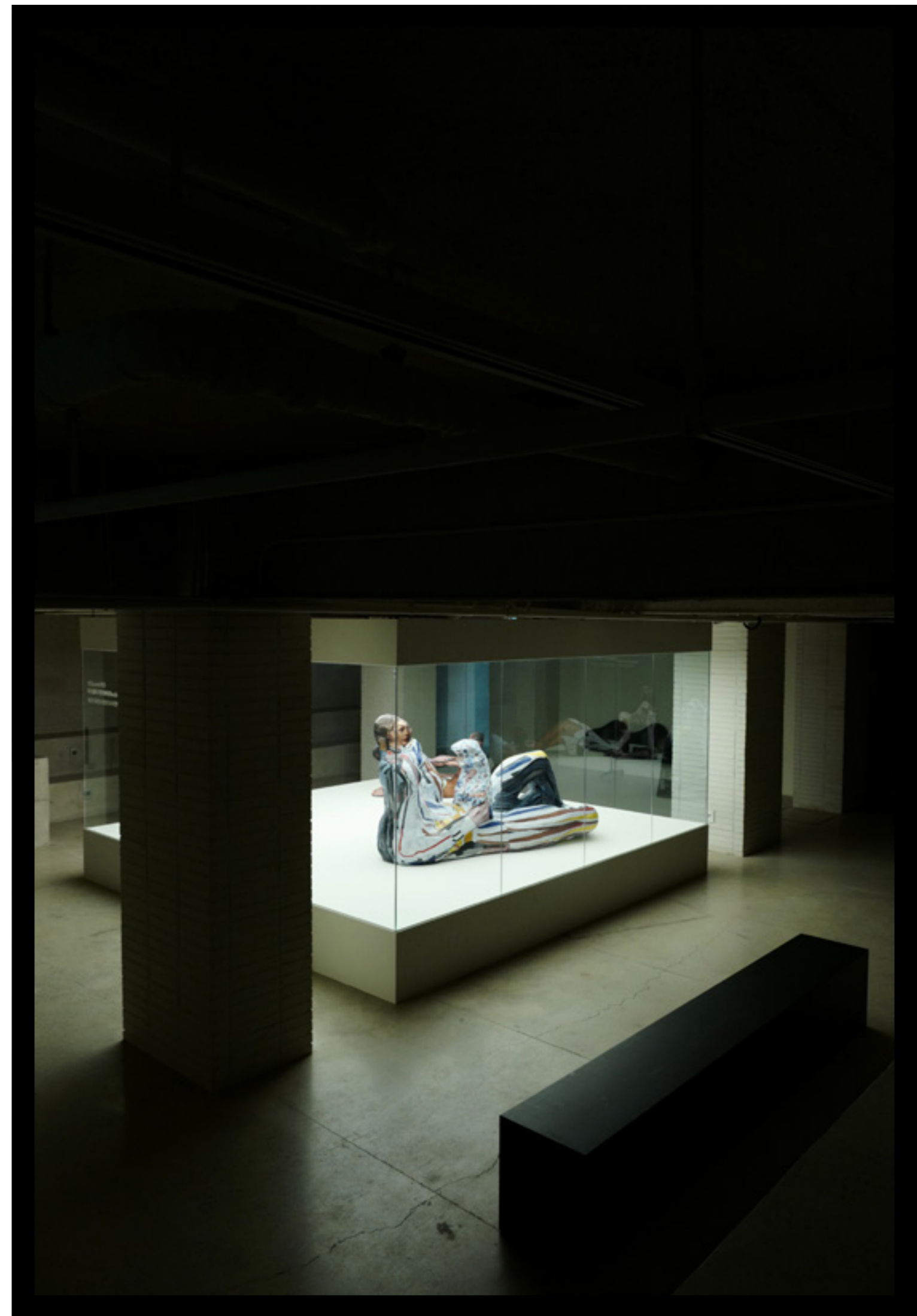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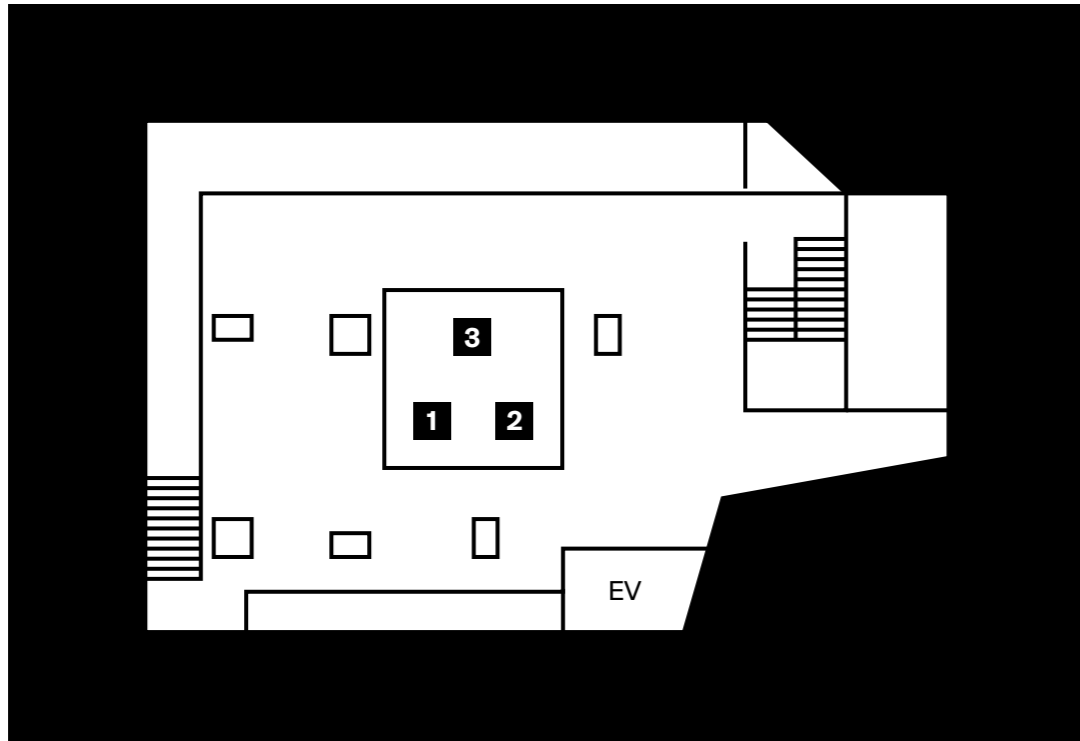


신(Scene) #B1
비스듬히 기댄 형태(Reclining Figure)



- 1** Reclining Figure 1 / 비스듬히 기댄 형태 1, 2020
C-print, mixed media, 125×60×67(h)cm
- 2** Reclining Figure 2 / 비스듬히 기댄 형태 2, 2020
C-print, mixed media, 197×69×92(h)cm
- 3** Reclining Figure 3 / 비스듬히 기댄 형태 3, 2020-2021
C-print, mixed media, 208×78×107(h)cm





Музей
Искусст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신(Scene) #B1
비스듬히 누워있는 형태 (Reclining figure)
메이디자인x원오디너리



신(Scene) #B1
비스듬히기댄 형태(Reclining Figure)
메이디자인×원오-리더리안×김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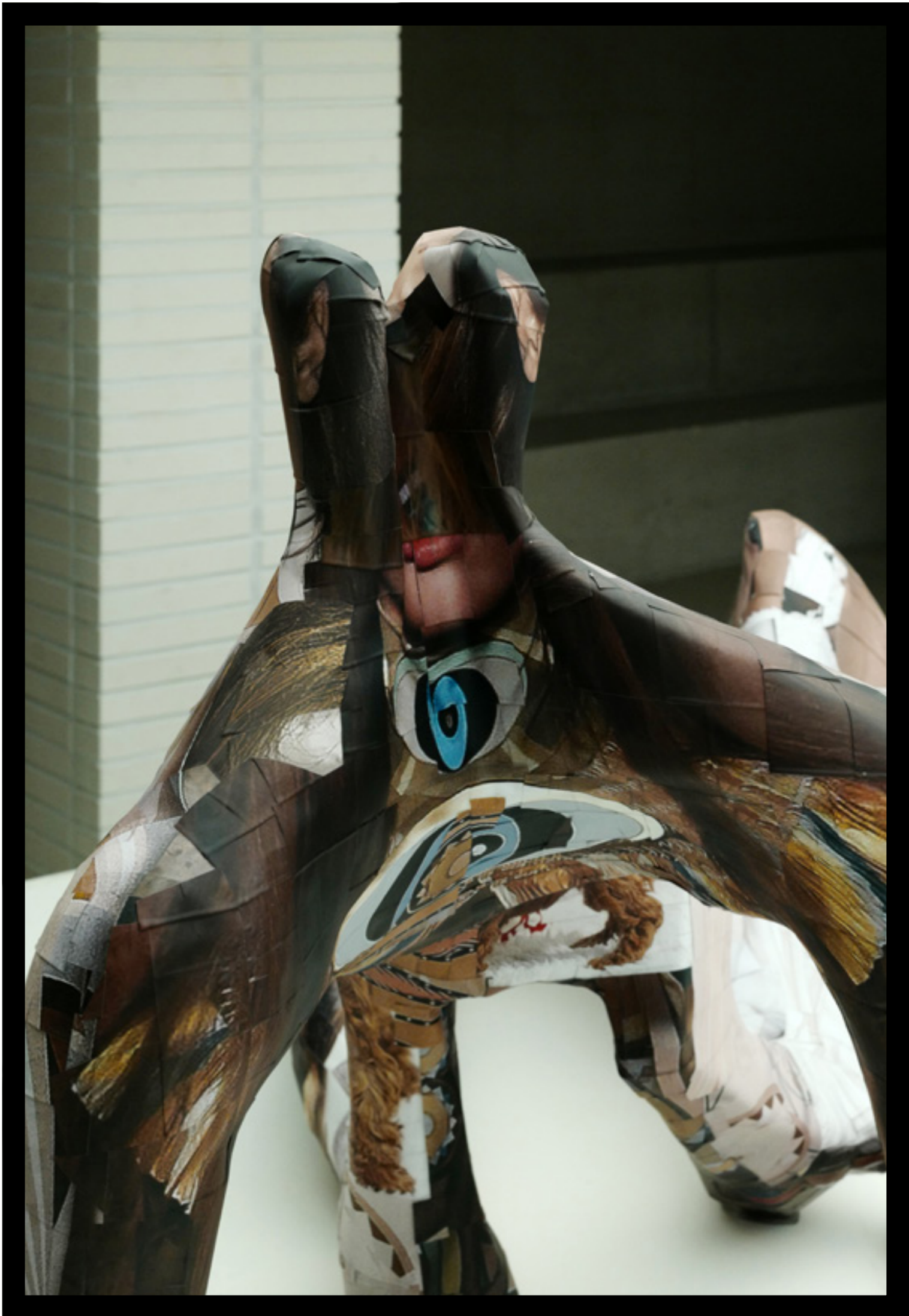














산(Scene) #B1
비스무리한 형태 (Reclining Figure)
에이디안 자인 × 니콜라 피렌티노 × 로렌스



산(Scene) #E1
비스무리한 거대한 형태 (Reclining Figure)
매지아니오 × 오디언스 × 오디언스 × 오디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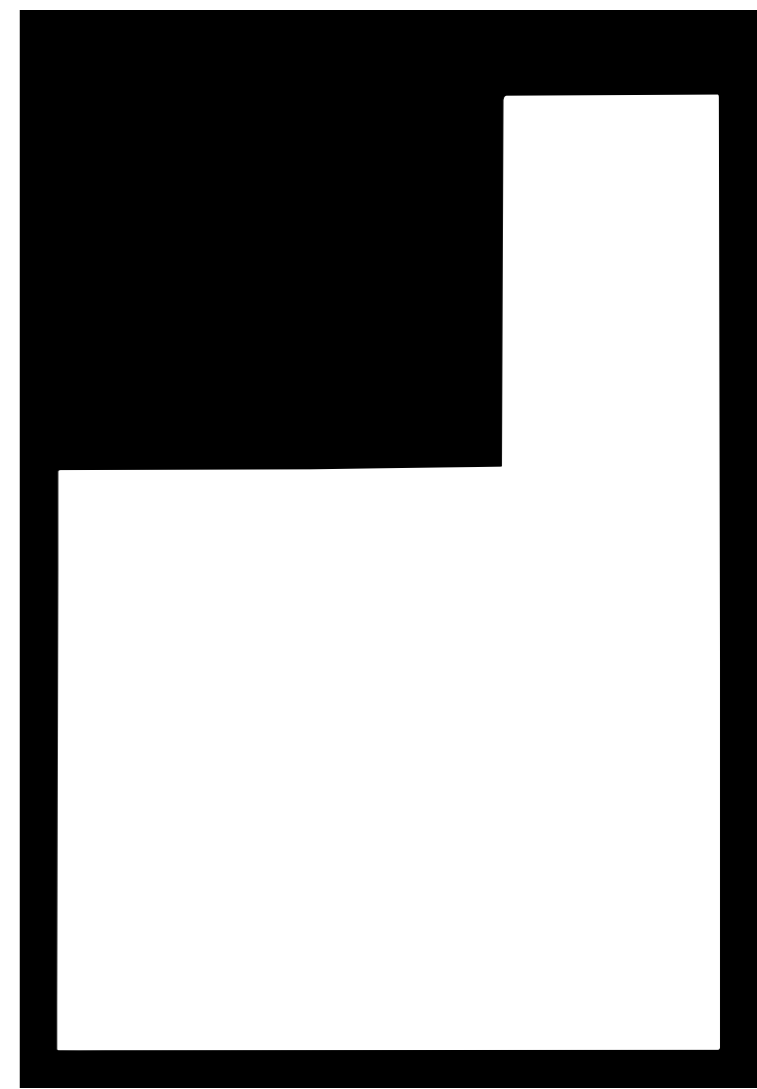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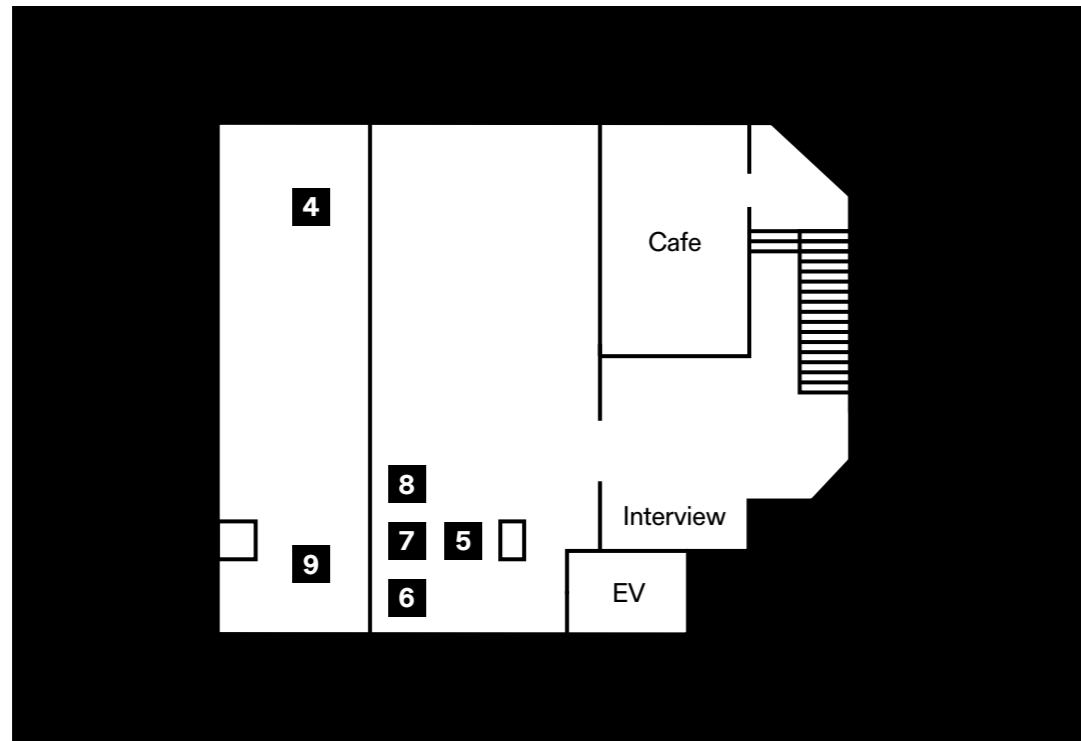








신(Scene) #1
 라운지의 모빌(Mobile of Lounge)



- 4** Ceramic Mobile 1 / 세라믹 모빌 1, 2019-2021
 Print on ceramics, aluminium, stainless, 100×60×200(h)cm
- 5** Ceramic Mobile 2 / 세라믹 모빌 2, 2019-2021
 Print on ceramics, aluminium, stainless, 100×60×200(h)cm
- 6** Cube Chair 1 / 큐브체어 1, 2021
 Print on wood, varnish, 41×52×74(h)cm
- 7** Cube Chair 2 / 큐브체어 2, 2021
 Print on wood, varnish, 41×52×74(h)cm
- 8** Cube Chair 3—Stool / 큐브체어 3—스툴, 2021
 Print on wood, varnish, 32×32×46(h)cm
- 9** Cube Chair 4—Lounge / 큐브체어 4—라운지, 2021
 Print on wood, varnish, 64×109×90(h)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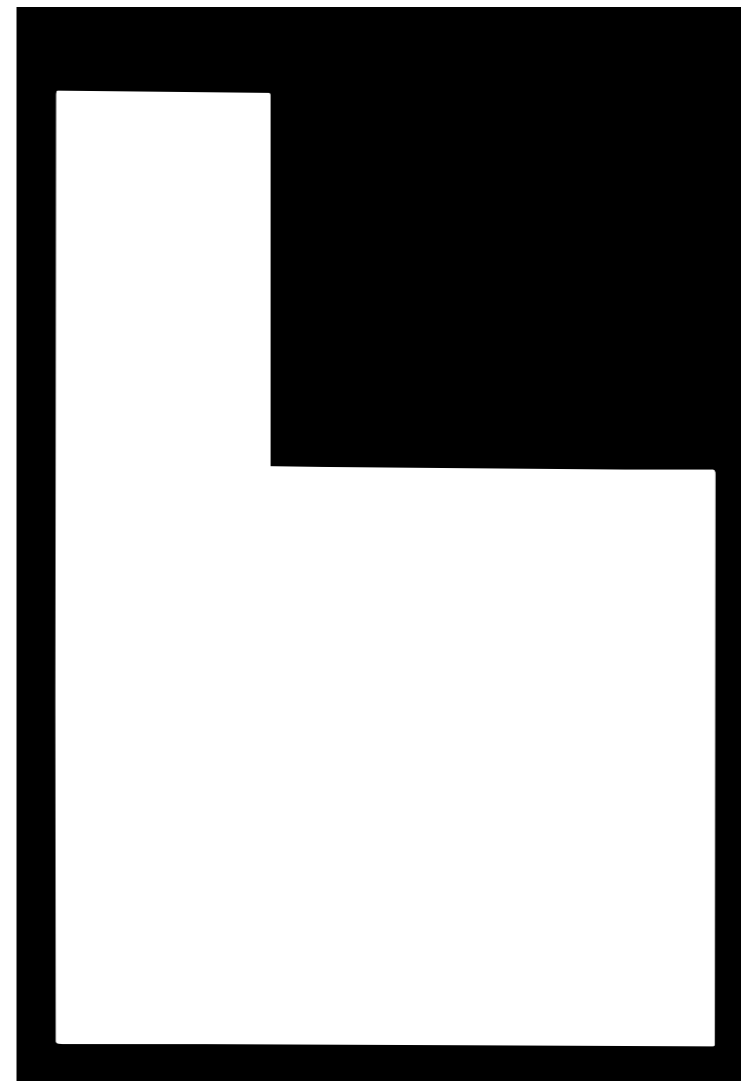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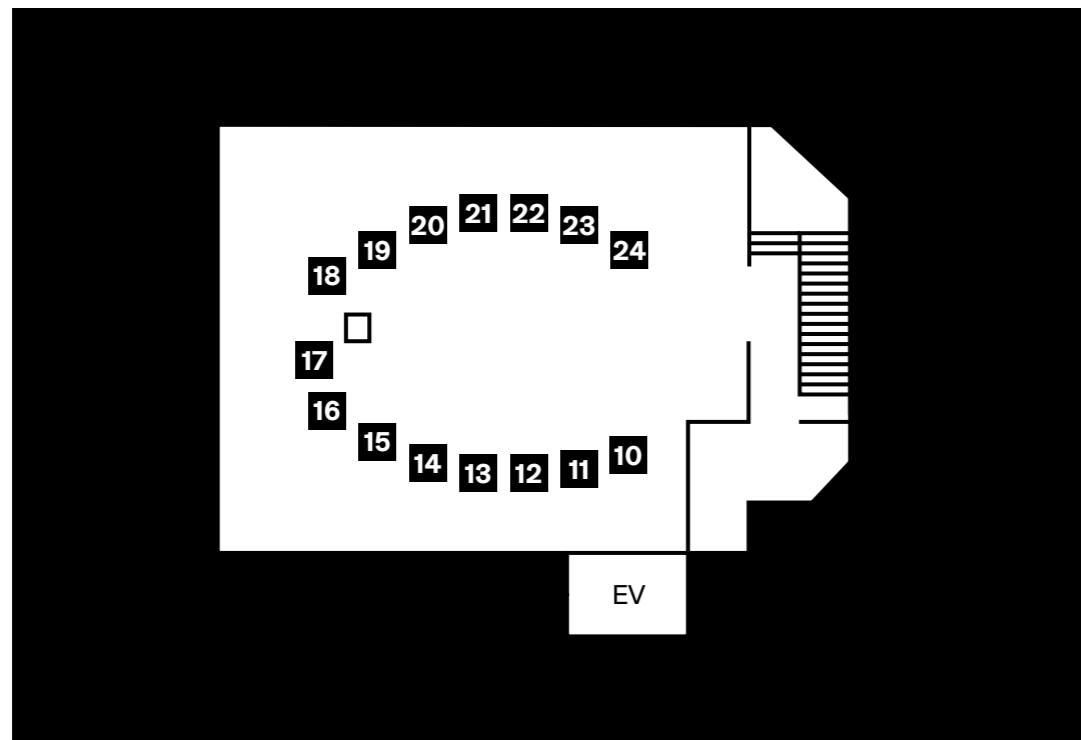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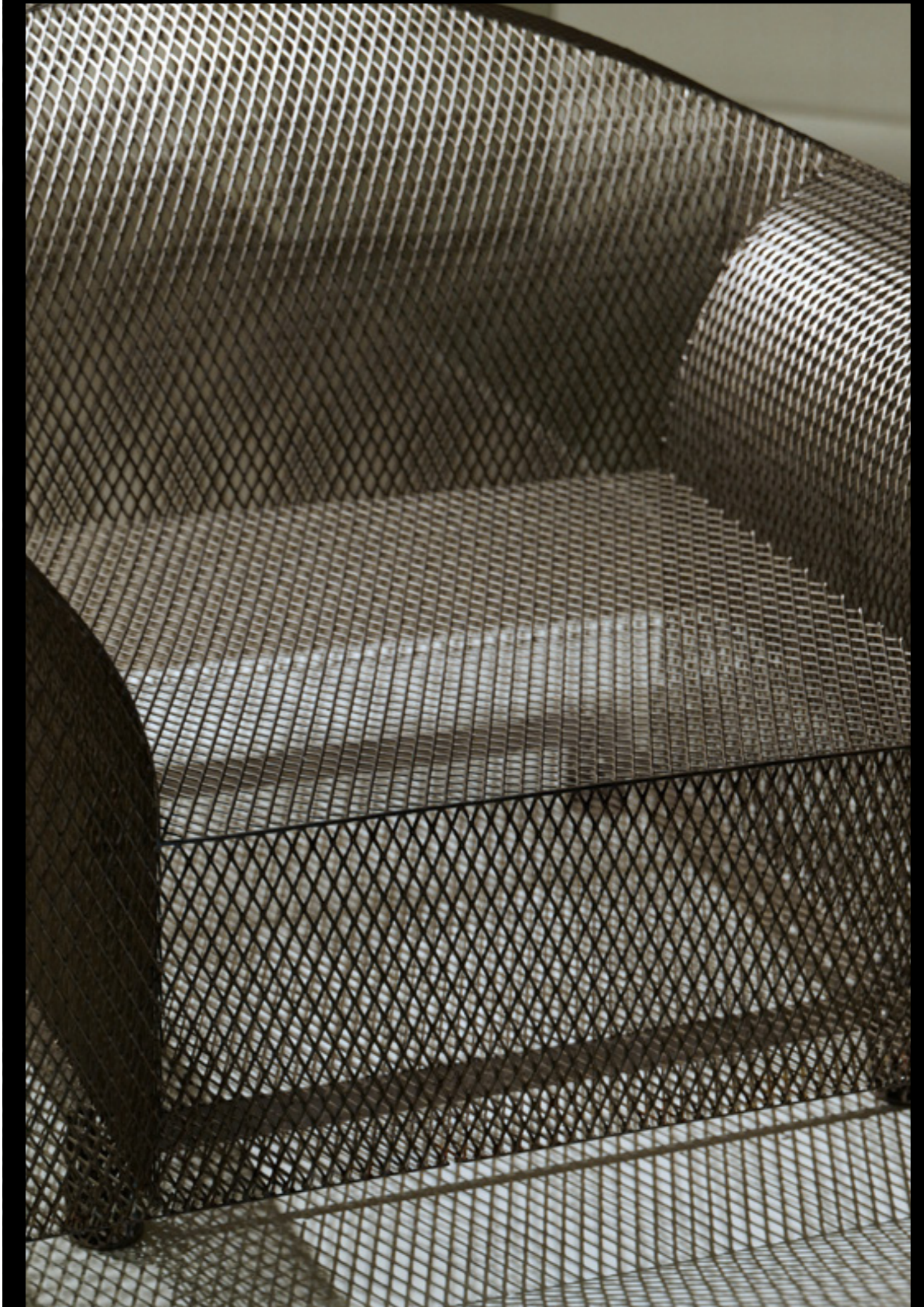




- 10 Chapo & Kiwi / 샤편와 키위, 2021
C-print, mixed media, 47×46×55(h)cm
- 11 Pierre Chapo, S31 stool, 1960s
Atelier Pierre Chapo
- 12 Head & Yorkshire Terrier / 두상과 요크셔테리어, 2015
C-print, mixed media, 36×24.5×40.5(h)cm
- 13 Jean Prouvé, Chaise Tout Bois, 1941
Ateliers Jean Prouvé
- 14 '50s standard Prouvé & Parker / 50년대 스탠다드 프루베와 파커, 2021
C-print, mixed media, 43×55×82(h)cm
- 15 Earthenware & Bosch / 토기와 보쉬, 2016-2018
C-print, mixed media, 49×30×49(h)cm
- 16 Head (LP) / 헤드(LP), 2020
C-print, mixed media, 25×28×34(h)cm
- 17 Head (MM) / 헤드(MM), 2021
C-print, mixed media, 37×37×78(h)cm
- 18 National Treasure No. 166 & Cava / 국보 166호와 까바, 2016-2018
C-print, mixed media, 52×36×91(h)cm
- 19 Orchid & Stool / 난과 스톨, 2013
C-print, mixed media, 43×33×80(h)cm
- 20 Willow Patterned Porcelain & GTO / 버드나무 무늬 병과 GTO, 2016-2018
C-print, mixed media, 26×18×49(h)cm
- 21 Head of a Daoist Immortal in Ming Dynasty & Birds / 명시대 신선의 두상과 새들, 2015-2018
C-print, mixed media, 33×24×54(h)cm
- 22 At Temenggong 28 / 테맹공 28에서, 2013-2018
C-print, mixed media, 38×35×110(h)cm
- 23 Annie's Dragon Head / 애니의 드래곤 헤드, 2016-2019
C-Print, mixed media, 30×27×32(h)cm
- 24 Perriand & Green Tangerine / 페리앙과 청귤, 2021
C-print, mixed media, 42×42×52(h)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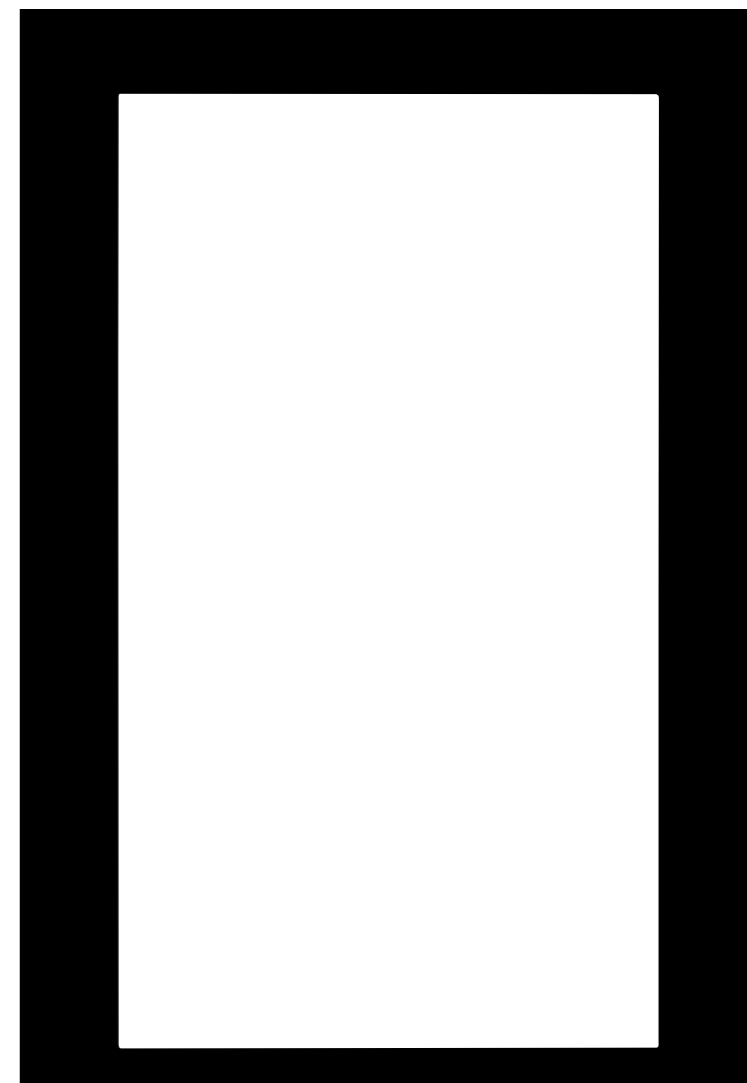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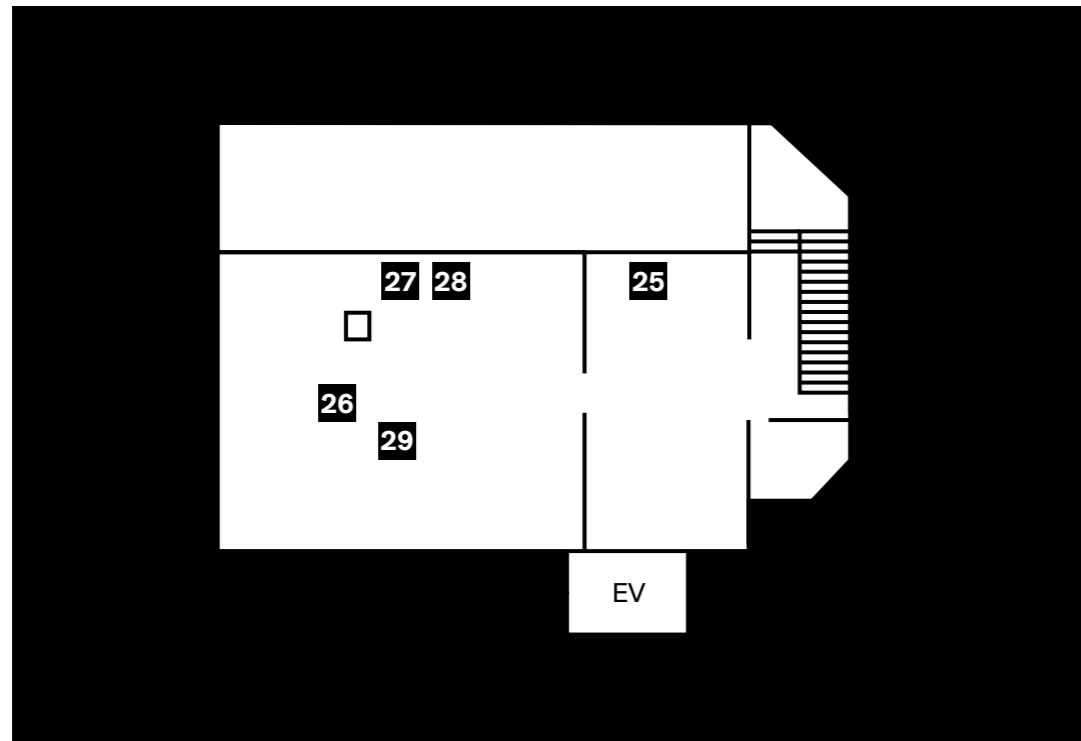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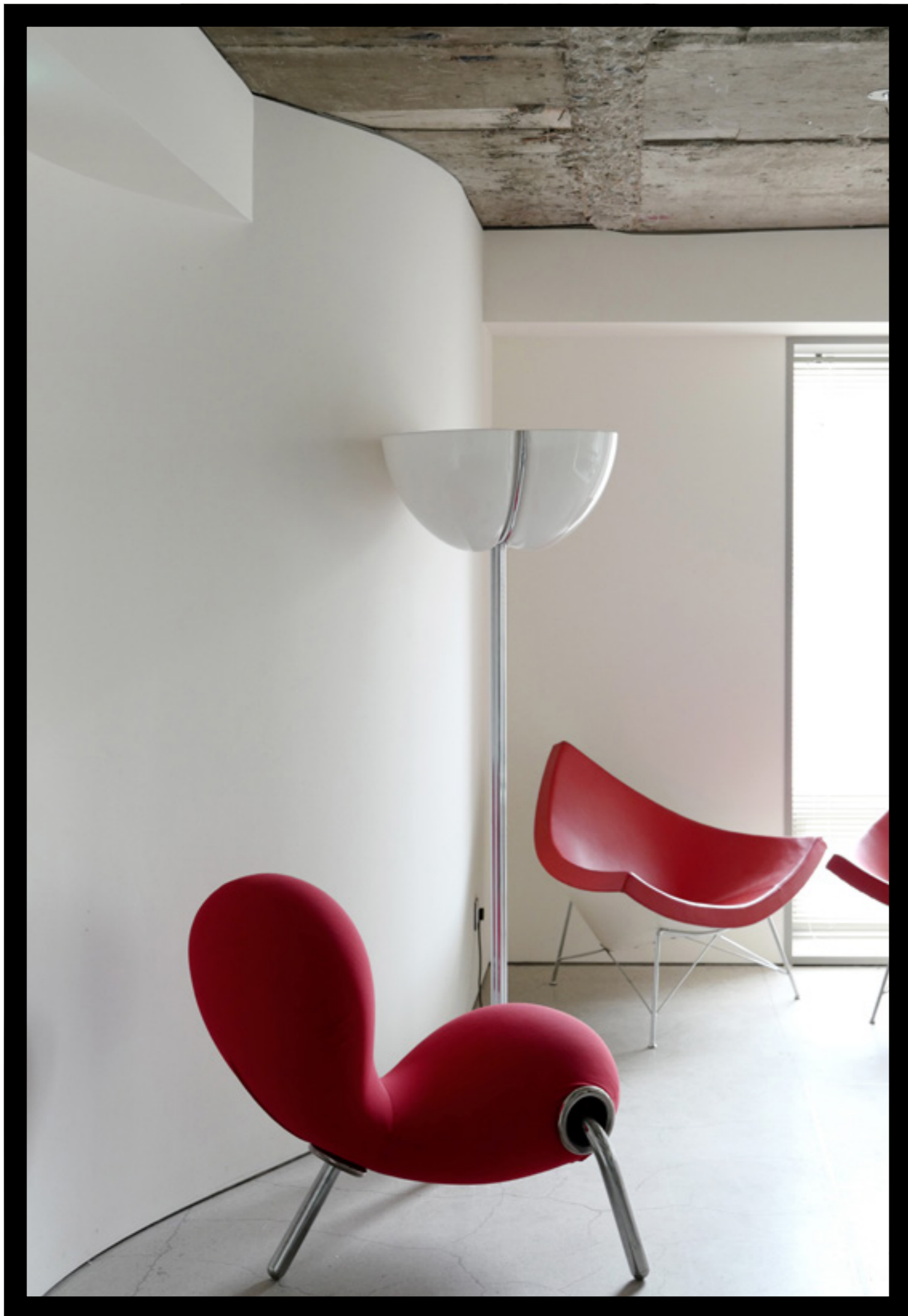




- 25** Relief1 / 릴리프 1, 2016
Print on wood, 81×188×6(h)cm
- 26** '40s Prouve Chair & Bird / 40년대 프루베 의자와 새, 2021
C-print, mixed media, 50×55×83(h)cm
- 27** Bust (Yoda) / 흉상(요다), 2016
C-print, mixed media, 28×18×25(h)cm
- 28** Bust (Kuma) / 흉상(쿠마), 2011-2012
C-print, mixed media, 18×13.6×18.7(h)cm
- 29** Angular Bottle / 모란무늬병, 2012
C-Print, mixed media, 23×23×34(h)cm













신(Scene) #4

작업실과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의자(Studio and Reclining Chair)

메이디디자인×원오디너리맨션×원오상



신(Scene) #4

작업실과 비스듬히 거댈 수 있는 의자(Studio and Reclining Chair)

메이디자인×원오아너리베이션×권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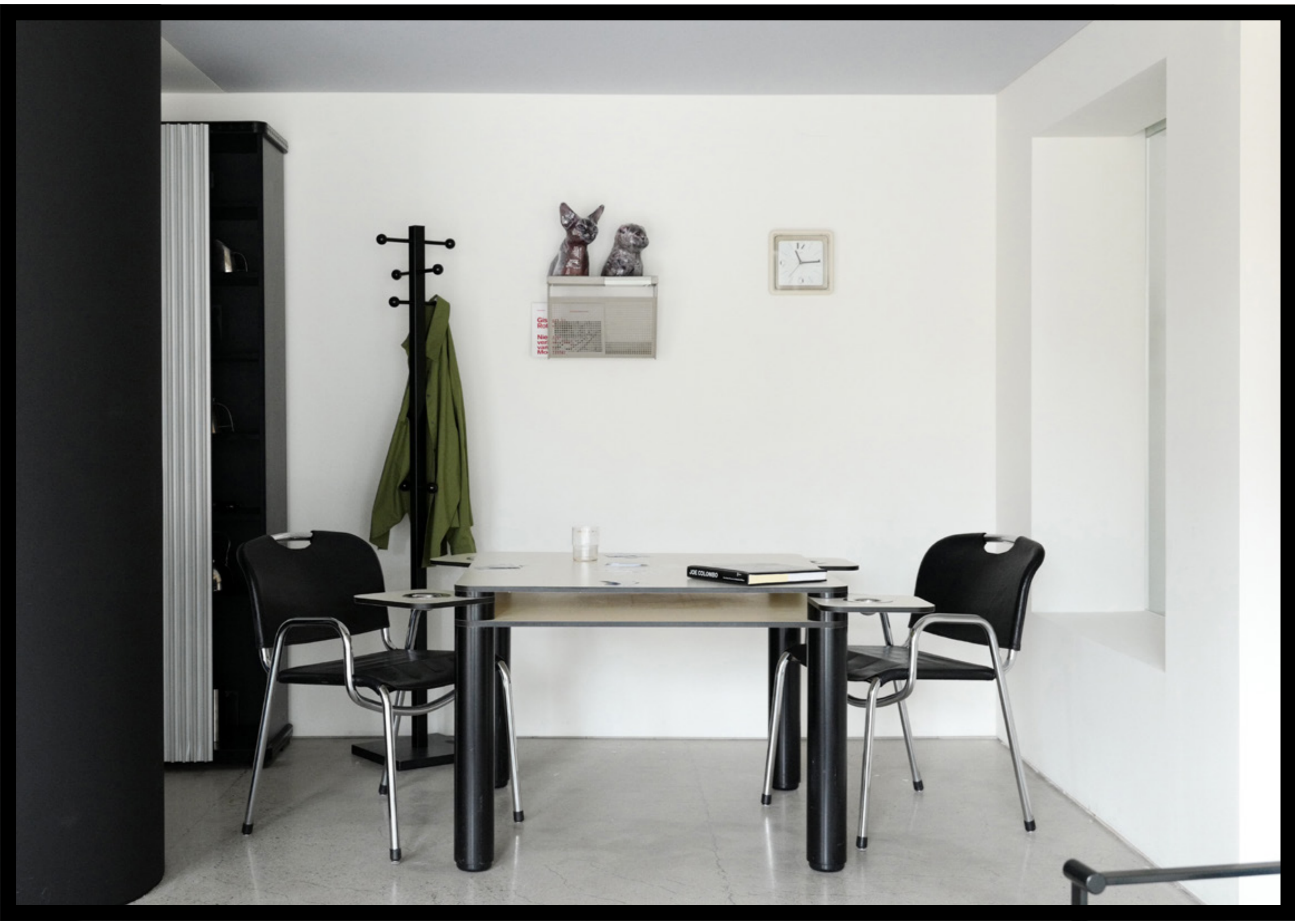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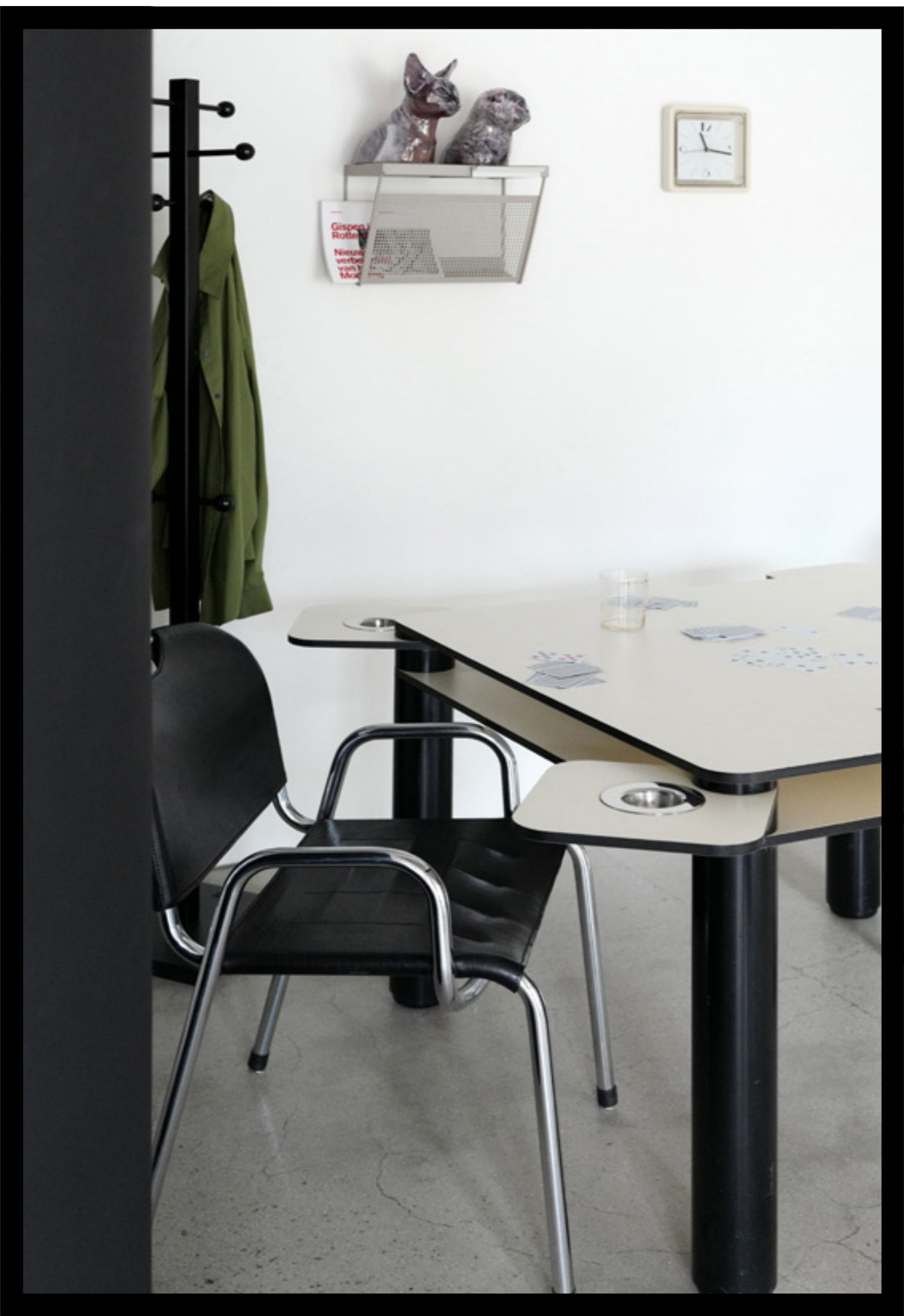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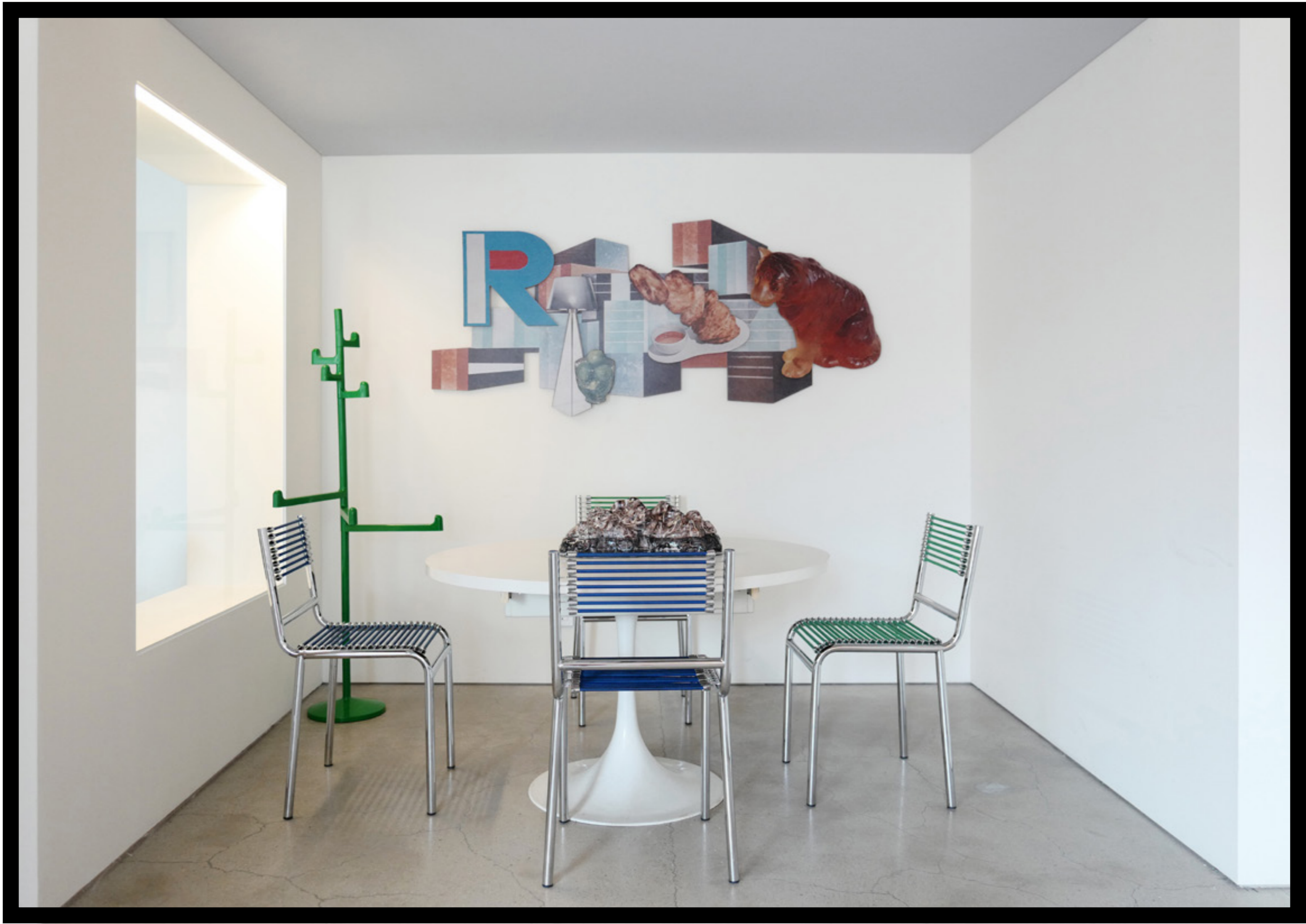


















권오상 개인전 조각의 시퀀스

조각의 시퀀스는 연속성이 있는 하나의 사건과 같은 시퀀스로 연결되도록 전환되는 각각의 다른 장면들을 구성하여 권오상 작업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왔던 '사진 조각'의 다양한 층위를 조각의 언어로 풀어내는 전시이다.

권오상은 조각의 언어를 꾸준히 연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의 범주를 새롭게 정의해내는 Reclining Figure 시리즈와 사물이 가진 고유의 기능에서 탈피해 새로운 구조적 덩어리(매스)를 만들어내는 Mass-patterns 시리즈를 소개한다.

Reclining Figure는 추상적 형태의 관심과 근대조각 중 하나인 와상의 형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와상 시리즈는 특히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의 형태로부터 조형적인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는 특정한 인물을 검색하고 그 이미지를 수집하여 추상적 형태를 표현하는 그의 아이디어가 돋보일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각 정보를 은유적으로 구성하는 독특한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메디디자인 및 원오디너리맨션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였다. 지하 공간은 Reclining Figure 시리즈를 네 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공간의 중심에 놓여진 거대한 좌대와 빛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오롯이 조각에 집중할 수 있는 장면(scene)을 연출했다. 3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시선의 방향과 함께 자연스럽게 중앙의 무대를 향한 관람석을 만들었다.

2층 공간에서는 두상과 Mass-patterns 시리즈, 그리고 원오디너리맨션의 미드센트리 디자이너들의 빈티지 제품을 사진 조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이 함께 소개된다. 낮은 좌대와 유리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선을 따라가면 마치 패션쇼의 한 장면을 뒤바꿔놓은 듯한 장면(scene)이 있다. 관객의 동선에는 작품들이 놓여 있고, 관객이 무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이 광경에서 새로운 전시 관람의 방식과 공간구성을 제안하고 있는 메디디자인의 실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4층 공간은 원오디너리맨션과 작가가 함께 구성한 상상의 조각 스튜디오를 만날 수 있다. 특별한 가구를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만들고,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권오상의 릴리프 시리즈와 함께 삶의 가치를 다양하게 소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는 조각이라는 매개에서 시작된 작가의 다각적 관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해내고 있다. 사진 조각에서 출발한 권오상은 다른 장르와의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왔다. 다양한 장르를 새롭게 결합해내고자 하는 그의 노력, 그리고 조각이 가진 미학적 가치를 꾸준히 재발견하는 그의 태도를 전시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Q 자기소개와 간단한 전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권오상입니다. 사진으로 조각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가구에 관련된 작품들이 나올 예정이고, 최근에 새로 시작한 추상적인 조각들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 Q 전시 공간별로 시퀀스, 즉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하공간의 시퀀스부터 공간에 들어가는 각각의 작품들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A 이번 전시장 지하에는 추상적인 세 점의 와상들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중했던 작품입니다. 이 조각들의 형태의 베이스는 헨리무어의 와상을 참조했고 그 와상을 바탕으로 사진을 붙이게 되는데, 특정 모델을 검색한 사진들을 모아서 조각의 형태 위에 사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진 조각들은 아주 초창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진 조각들이었어요. 내부가 텅 비어있었기 때문에 허공에 사진을 접어 조각을 서로 이어붙이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교한 형태가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2001년 이후부터는 내부의 폼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형태가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배워왔던 보다 정교한 형태를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조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형태들은 미술사에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베르니의 조각, 로댕의 조각들의 형태들이 많이 등장했었고, 20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정교하게 제작된 사진 조각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면서 리서치하고, 찾은 것들이 초창기 조각들의 형태적인 러프(Rough)함에 사진이 무작위로 덧붙은 형태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사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추상적으로 붙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꽤 오래 가지던 중 몇 년 전에 W 잡지와 함께 만든 유아인 배우의 초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경우는 다섯 가지로 되어있는데, 다섯 가지가 추상에서부터 아주 사실적인 얼굴까지 다섯 가지의 단계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티스의 조각을 보면 추상부터 구상으로 가는 다섯 가지 단계를 만든 흉상 작품이 있어서 참조를 하였고, 유아인의 얼굴을 다섯 단계로 변형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바로 연결되는 작업이 지지 하디드를 모델로 한 와상 시리즈들입니다. 그중 이 년 동안 만들었던 작업이 세 점 있는데, 그 세 점이 다 이번 전시에 소개됩니다.
- Q 이번에는 메이디자이너랑 협력으로 전시를 진행하였는데 공간구성에 대해 이전의 전시 구성과 다른 지점이 있었을까요?

A 메디디자인 같은 경우 공간을 계속 구축하고 또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었습니다. 또 제 작업실을 한번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이번 전시가 조금 더 긴밀하게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구요. 이번 전시에서는 각 층별로 바뀌는 각각의 장면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안을 보여줬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몇몇 구성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예술가들은 오래 작업하다 보면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미술관의 재정적인 문제라던가 작가의 재정적인 문제로 새롭고 다양한 공간이 구현되지 않는 상황이 다반사인데,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공간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메디디자인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작업 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앉을 수 있는 가구나 작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시행착오 끝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4층에서 원오디너리 맨션과 함께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상 라운지 혹은 권오상 작업실 같은 공간으로 연출되었고, 메디디자인에서 그 공간을 스타일링 하고 제작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 작업실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으므로 스타일을 잘 맞추어서 제작하였고 전시공간도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의 원 오디너리 맨션의 가구들과 조화롭게 전시된 제 작품은 페리앙 스톨 외 장푸르베 40년대 50년대 체어로 큐브체어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만들 작품인 프루베의 라운지체어는 제 스타일대로 재연하여서 만든 것으로 오리지널 의자와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Q 2층은 지하와 다르게 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좌상들과 의자들이 연결된 긴 좌대위에 놓여졌는데 어떤 또 다른 장면(시퀀스)이 연출되고 있을까요?

A 2층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좌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좌대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여러 작품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보이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게 유리 벽이 세워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리 벽이 하나의 프레임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장면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작품은 지하에 나왔던 추상적인 와상들의 시작단계에서 만들었던 파바로티의 추상적인 두상 그리고 뒤에 보이는 매튜 매커너히 배우의 추상적인 두상들입니다.

그리고 가구 편집숍인 원오디너리 맨션에서 대여해준 장푸르베 가구와 샬로트 페리앙 가구를 이용한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에서 영감받은 사진 조각들이 전시되었습니다.

Q 그럼 이번엔 4층의 공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공간의 경우 원오디너리 맨션의 가구들과 메디디자인의 공간구성 그리고 권오상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이 함께 보여지는 장면(시퀀스)이 연출되는데 쉽지 않았을 거라 예상됩니다. 진행과정이 어떠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원오디너리 맨션에는 좋은 가구가 너무 많아서 고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대표님께서 제일 처음 추천해주신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그 가구들을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페리앙 의자가 대표적인 예이고 직접 대여 후 촬영해서 제작하긴 했지만, 다시 입방체 의자들로 나와서 또 다른 간단한 사진 조각일 수도 있고 의자일 수도 있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은 제 시리즈 중에 릴리프나 뉴스트럭처를 만드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고, 거기서 나왔던 재료들로 가구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Q 공간타이프를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작가님께서 꾸준히 제작해오신 "사진 조각"이 무엇인지 간략한 소개 혹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작업하는 작품들은 조각을 만드는 것인데, 보통의 생각으로의 조각은 철로 조각을 만든다던가 돌, 나무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이 작품들은 사진으로 만들어진 표면을 가진 하나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 작업들은 직접 촬영을 한 사진들로 조각을 만들었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와상 같은 작품들은 검색한 사진들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지지 하디드라는 유명한 모델인데, 그 모델의 얼굴이나 어렸을 때 사진들을 가지고 주인공과 아기의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최근 에르메스를 위한 윈도우용 작품을 구상하다가 나온 구성중 하나였는데 채택되지 못했었고, 개인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해서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Q 예술가의 길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경우, 꾸준한 작업을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A 포기하고 싶은 경우라던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직업이라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업이 있으므로 생활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경우? 그럼 직업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으니 이 직업을 계속하고 있고, 운이 좋아서 이 직업을 수행하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학교를 졸업할 때쯤 작가로 알려져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여지나 계기가 없었던 것 같고, 원동력은 항상 다음 전시 일정이었던 것 같고, 올해 타이프 전시처럼 큰 전시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또 올해를 무사히 작업하면서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협력전시를 많이 진행해오셨지만 이번 전시는 또다른 유의미한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준비의 메이디자인, 원오디너리맨션이라는 두 회사와의 협력의 과정에서 느낀 점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메이디자인은 전시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구현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내겠다. 라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공간 시안으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시안들이 일반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었고, 미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보도록 구현하는 것이 메이디자인의 목표였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작품을 감상해주고 같이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도 피드백하면서 많은 시너지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체어는 제 작품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메이디자인의 아이디어였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의자를 우리가 제작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전시가 끝나도 협력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페리에나 장푸르베처럼 건축가가 만든 가구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협업이 이런 의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이런 제품이 판매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